

복잡계로서 단어의 의미론적 정체성에 대한 학제적 연구

－ 구조의미론, 분석철학, 해석기호학을 중심으로

윤성노*

【 차 례 】

- I. 서론
 - 1. 연구 목적
 - 2. 문제제기 및 연구가설
- II. 본론
 - 1. 놀이로서의 언어
 - 2. 구조 의미론
 - 3. 의미와 해석
 - 4. 복잡계로서의 세미오시스
- III.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언어가 가능 세계 구축을 위한 비선형 복잡계라는 가정 하에 단어의 의미론적 정체성을 논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먼저 19세기 비교언어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언어를 놀이에 비유하는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을 통해 언어연구에 왜 가치 이론이 필요한지 설명한다. 그런 다음 구조 의미론(포티에)을 도입해 의소범주들을 유형별로 기술하고, 해석 의미론(라스티에)의 관점에서 문맥 의존적인 의소들의 역할을 고찰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해석소를 중심으로 퍼스의 해석 기호학(퍼스)을 기술하고 구조적 연구 패러다임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의미론적 지각”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호학이 왜 자기조직화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지 논증한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다. 마지막으로 기호-언어학적 단위의 의미론적 정체성을 오롯이 파악하기 위해 언어, 지각,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탐구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열쇠어 : 자기조직화, 언어게임, 차이, 의소범주, 의미론적 지각, 외재성, 해석소

I. 서론

1. 연구 목적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단어란 본래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장기의 말이란 무엇인가’”¹⁾로 풀어 쓸 수 있고 언어를 놀이에 비유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의 오성에 마법을 거는 것’에 대한 철학자의 해독제”²⁾이다. 이렇듯 마법에 걸린 오성에 그가 ‘화용론적’ 해독제를 처방한 이후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심에 놓는 입장을 반박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런데 언어는 또한 언어-기호학의 소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학문의 협업을 기대하는 건 자연스런 수순일 것이다.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철학은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영감을 제공하는 언어학 연구에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고, 기호학은 언어로의 철학적 선회로부터 실질적인 방법론적 쇄신을 일구어 내지 못한다. 이에 본고는 단어를 둘러싼 의미론적 정체성에 대한 두 학문의 입장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융합을 통한 혁신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제 간 문제의식과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1) Wittgenstein, Ludwig,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Anscombe G. E. M. and Rhees R. (eds.), Anscombe G. E. M. (trans.)], 1978, p.108. 저자가 강조함.

2) 로이 헤리스,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고석주 역, 보고사, 1999, 66쪽에 재인용

2. 문제제기 및 연구가설

내재적 구조주의(structuralisme immanentiste) 비판 시 접하는 단골메뉴 중 하나는 기호를 규정함에 있어 소쉬르가 기호 사용자와 지시체(référent)는 배제한 채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소위 “엄격한” 구조 개념이다.³⁾ 구조주의가 비(반)인간적이라고 비난받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그가 실제로는 언어 ‘외적 요소들’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⁴⁾ 『일반언어학강의』 초판본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소쉬르가 지시체의 속성을 참조해서 어휘 분석을 시도 하하는가 하면⁵⁾, “단어 뒤에 숨은 단어들”(anagrammes)을 연구할 때에는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해석학적(herméneutique) 방법론을 활용하기도 했다.⁶⁾ 이에 따라 오늘날 해석의 관점에서 랑그와 빠를을 관통하는 통합 언어학(linguistique unifiée)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타진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른바 “네오 소쉬르주의”⁷⁾이다. 그렇다면 기호-언어학적 인식론에 일고 있는 이런 지적 지형 변화로부터 우리는 어떤

- 3) “기호론(Sémiologie)을 사회심리학의 한 분야로 간주한 그(소쉬르)의 기호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후학자들, 예컨대 Buysens, Priéto, Hjelmslev, Greimas가 ‘엄격한’ 구조 개념과 그로부터 도출된 ‘너무 강한’ 이론을 고수한 나머지 기호 사용자와 사용 맥락을 기호학 연구에서 배제하고 이로써 ‘기호의 삶을 사회적 삶’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윤성노, 「정의의 관점에서 문화연구자는 문화시장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기호학 연구』 43, 한국기호학회, 2015a, 156쪽.)
- 4) “최근 발견된 소쉬르 친필본 덕분에, 『일반언어학강의』 초판 편집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소쉬르는 랑그/빠를을 양립 불가능한 대립항으로 설정하지도, 전자가 후자에 이론적으로 우선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윤성노, 「굿판의 의미 생성 및 주술치료에 대한 기호-인식론적 소고」, 『인문논총』 67, 서울대학교, 2012, 121쪽.)
- 5) Marie-José Reichler-Béguelin, "Saussure et l'étymologie populaire" dans *Saussure aujourd'hui* (sous la direction de Michel Arrivé et Claudine Normand), *Linx* numéros spéciaux 7, 1995 (<http://linx.revues.org/1131>)
- 6) Starobinski, J., *Les mots sous les mots. Les anagrammes de Ferdinand de Saussure*, Paris: Gallimard, 1971.
- 7) Bouquet, Simon, “Principes d’une linguistique de l’interprétation: une épistémologie néosaussurienne”, *Langages* 185(1), 2012.

교훈을 얻어야하는가?

우리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일반언어학강의』 초판본에서 제자들에게 의해 편집된 소쉬르(전기 소쉬르)와, 다른 한편에서는 편집 과정에서 배제된 소쉬르와 다른 학생들의 강의노트 그리고 소쉬르 사후 발견된 그의 친필본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소쉬르(후기 소쉬르)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세미오시스를 기표/기의의 관계나 “차이”에 기인하는 가치의 문제로 국한하는 전기 소쉬르의 기호사상은 환원주의적이며, 이에 기호와 주체 그리고 대상세계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서로의 장단점을 반추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본고의 연구가설은 1) 미시적으로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거시적으로는 진화적 압력이 기표와 기의 차원에 작용하며⁸⁾, 2) 기호로 매개되는 의미에 깃든 뜻과 마음 그리고 지시체에 부여된 역사적, 사회-문화적 속성들을 고려해서 언어적 정체성을 찾을 때 비로소 기호학도 “우리 시대에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지적 발전 중 하나인”⁹⁾ 자기조직화(*autopoïësis*) 현상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된 사물에 드러난 마음을 헤아리고 기호 사용 맥락과 관련된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문화적 배경지식을 참조하다보면, 지각현상학이나 인지과학 혹은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로 구조적 연구 패러다임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류 공통의 보편적 소통능력(*language*)에 대한 학제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할 것이다.

8) 크리스틴 케닐리, 『언어의 진화 : 최초의 언어를 찾아서』, 전소영 역, 알마, 2009, 350쪽에 재인용

9) 프랜시스 후쿠야마, 『대붕괴 신질서』,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역, 김영사, 2001, 23쪽

II. 본론

1. 놀이로서의 언어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인 소쉬르 이전은 비교언어학자들(philologues)의 시대였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자매어들의 계통도를 작성해 그것들이 파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어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런 때문에 그들은 상이한 언어들에서 뜻이 유사한 단어들을 추려 그들 사이에 발견된 음성 대응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음성 법칙을 밝히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론 중 하나가 표현에서 출발해 개념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어의론(sémasiologie)이었다. 예컨대, 프랑스어에 단어 “arbre”(‘나무’)가 있으므로 이론을 통해 그 존재가 가정된 조어도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교언어학자들은 오늘날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는 도외시 한 채 형태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주목했다. 또 다른 방법론은 명칭론(onomasiologie)이다. ‘복수’(pluriel) 따위의 개념이 가령 산스크리트어나 프랑스어에서 표현되는 지, 표현된다면 어떤 단어들로 표현되는지 연구하는 것이다.¹⁰⁾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시공간에 따라 음성 형태가 변하더라도 개념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쉬르는 “공시적으로 상호의존적인”¹¹⁾ 언어단위들의 체계적 성격은 무시하고 형태와 개념이 서로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이야말로 19세기 언어학의 근본적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류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비트겐슈타인¹²⁾에 따르면, 무엇보다 먼저 단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10) Saussure, Ferdinand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édition critique par Tullio de Mauro], Payot, Paris, 1972, p.161.

11) “언어(랑그)는 모든 부분들이 공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간주되어야 하는 하나의 체계이다.”(Saussure, Ibid., p.124.)

12) “한 번은 현재 유효한 체스 규칙의 총합을 의미하기 위해, 다른 한 번은 페르시아에서 무명씨에 의해 고안된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발달된 놀이를 의미하기 위해 단어 “체

대해 말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단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의미”한가? 나이트가 “놀이에서 그것의 가치(valeur)를 얻거나 확인 받을 때”¹³⁾라고 소쉬르는 말한다. 나이트를 체스판에서 떼어내 그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거나 재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도구 제작자나 역사연구자에게는 물론 흥미로운 연구주제임에 틀림없지만 놀이를 하는 데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놀이를 하려면 놀이 규칙을 알아야 하고, 규칙을 안다는 것은 체스판에서 나이트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며, 가치를 확인한다는 것은 나이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속한 언어체계에서 다른 단어들과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체계를 구조화하는 관계들의 망에서 나오는 가치가 바로 단어의 기호적 정체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¹⁴⁾ 구조 언어학에서 왜 가치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무엇인가? 단어가 속한 공시적 언어 체계(어휘 장) 내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상학적 위치 값으로 장을 구조화하는 “차이들”의 열개 속에서 소극적으로(négativement) 규정되는 어떤 것이다.

스”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체스 규칙의 발달(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Wittgenstein, Ludwig, *Philosophical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Rhees R. (ed.), Kenny A. (trans.)], 1974, p.238.)

- 13) “체스에서 나이트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은 그 자체만으로 놀이의 요소인가? 분명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판에서의 그것의 자리와 시합의 다른 조건들과 분리된, 물리적 대상물로서의 그것은 놀이꾼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실재적이고 구체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그것이 놀이에서 그것의 가치를 얻거나 확인 받을 때만이다.”(Saussure, *Op. cit.*, pp.153~154.)

- 14) Saussure, *Ibid.*, p.162.

2. 구조 의미론

단어의 언어-기호학적 정체성의 핵심이 가치이고 가치는 체계(어휘장)를 구조화하는 차이들의 망 속에서 소극적으로 규정된다는 생각을 어휘 분석에 적용한 것이 바로 구조 의미론(sémantique structurale)이다. 프랑스어 단어 ‘siège’(의자)를 예로 살펴보자.

1) 연합적 의미성분

포티에¹⁵⁾는 ‘의자’를 ‘가구’의 하위 장으로 간주하고 장을 구성하는 항목들로 “chaise”, “fauteuil”, “tabouret”, “canapé”, “pouf”를 제시한다. 어휘항목은 어휘소(lexème)이고, 어휘소들과 비교해서 “siège”는 원어휘소(archilexème)이다. 그렇다면 구조 의미론에서 중요한 건 원어휘소 “siège”로 명명된 어휘 장 내에서 어휘소들이 차지하는 위상학적 위치 값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는 다음처럼 도식화할 수 있다:

	등받이	팔걸이	다리	개인용
chaise	+	-	+	+
fauteuil	+	+	+	+
tabouret	-	-	+	+
canapé	+	+	+	-
pouf	-	-	-	+

〈도식1. ‘의자’ 장 의소 분석〉

상기 도식에 내포된 가설은 언어에는 “차이들”만 존재하고, 차이가 소수의 변별적 자질들을 만들며, 그 자체로는 무의미한 소수의 의미자질들을 가지고 ‘의자’ 장을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치는 유무표성(marqué/non-marqué[+-])으로 표기된 의소(s: sèmes), 즉 s1(‘등

15) Pottier, Bernard, *Sémantique généra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

받이[+-]), s2(‘팔걸이[+-]’), s3(‘다리[+-]’), s4(‘개인용[+-]’)에 상응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조적 모델링이 지닌 이점은 무엇인가? ‘단어’의 “의연”(dénotation)을 이가(bivalence)적 의소범주들의 총합(의미소 *sémème* 혹은 *sémantème*)으로 규정하고, 의미의 질료(*matière*)가 위계적으로 상이한 차원들(원의미소, 의미소, 의소)에서 조직되는 양상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통합적 의미성분

상기 ‘의자’ 장 분석은 언어활동(*langage*)의 연합 축(*axe paradigmatique*)에 관련된다. 그런데 언어로 놀이를 하려면 통합 축(*axe syntagmatique*)에서도 규칙을 살펴야한다.¹⁶⁾ 문장을 예로 들자면, 연합 축 위에서는 문장의 한 지점에서 선택된(*in presentia*) 요소가 그 지점에서 선택되지 않는(*in absentia*) 동일한 계열의 대체 가능한 다른 요소들을 “연상”(association)시키고, 통합 축에서는 서로 다른 계열에서 선택된 요소들을 서로 “대조”(contrast)시키는 인지활동이 일어난다.¹⁷⁾ 따라서 단어의 구조적 의미를 오롯이 기술하려면 그것이 속한 어휘 장을 구조화하는 변별적 대립범주들을 찾아내는 일과 함께 통사론적 차원에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는 규칙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의미성분으로 포티에는 분류소, 기능소, 잠재소를 제시한다.

(1) 내재적 의소

(1-1) 분류소

분류소(*classème*)는 아주 포괄적인 “총칭의소”(sèmes génériques)를 지칭한다. 프랑스어 동사 “manger”(‘먹다’)를 예로 들자면, 그것을 포함하는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각각 생명이 있는(/animé/) “행위

16) Saussure, Op. cit., p.62.

17) 손 호머, 『라캉 읽기』, 김서영 역, 은행나무, 2006, 83~84쪽

자”(agent)와 식용 가능한(/mangeable/) “피행위자”(patient)가 와야 한다. 그리고 /animé/와 /mangeable/은 다시 ‘생명이 없는’(/inanimé/)과 ‘식용 가능하지 않은’(/non-mangeable/)이라는 대립항을 상정한다. /agent/ vs /patient/, /animé/ vs /inanimé/, /mangeable/ vs /non-mangeable/ 따위의 아주 일반적인 대립범주로 분절되는 의미성분들이 바로 총칭의소이다. 또한 “manger”를 동사구의 핵(tête de syntagme verbal)으로 갖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행위자라는 총칭의소를 지닌 어휘소가 와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의미론적 제약”(restriction sémantique)과 관련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의미제약을 준수하지 않았고 수사적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라면, 관련 동사를 포함한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분류소는 기능소와도 연관이 있다.

(1-2) 기능소

기능소(fonctème)란 어휘소의 통사적 기능과 관련된 의미성분이다. 가령 “manger”(‘먹다’)는 기능소로 타동사라는 ‘품사’를 지닌 어휘소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의미론자들은 왜 품사 대신 기능소라는 용어를 선호하는가? “담화부분들”(parties de discours)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중세 때 논리학, 수사학과 함께 “세 학문”(Trivium)을 이루던 전통 문법으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품사”라는 용어로 여전히 통용되고 있지만,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이 용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사실 “manger”가 타동사(‘품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통사론적 속성을 기술하는 데 충분치 않다. 가령 “sentir”(‘느끼다’)도 타동사이지만 문장에서 사용될 때에는 주어 자리에 “지각자”라는 의소를 충족시키는 어휘가 올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manger”는 ‘행위동사’로, “sentir”는 ‘지각동사’로 명명함이 옳다. 중요한 건 명제가 동사로 표현될 때 항들(arguments)을 채우는 어휘소의 의미성분에 따라 ‘타동사’ 범주(‘품사’) 구성원들을 행위동사, 지각동사, 인지동사, 상태동사 등으로 하위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고유한 통합적 결합규칙을 참조해서 문장의 의미-통사론적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어능력”(촘스키)의 핵심인 문법성 판단 근거에는 이렇듯 통사론뿐만 아니라 의미론의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성문법가이자 언어철학자인 케이츠와 포더¹⁸⁾가 의미제약 규칙에 따라 의미성분들이 결합한다는 생각을 어휘 의미론에 도입함으로써 구조주의에서 생성주의로 문법 연구 패러다임의 이동을 꾀한 바 있다. 한편, 그레마스¹⁹⁾는 연합/통합적 의미성분, 의미-통사론적 제약, 행위소^{actant}, 동위소^{isotopie} 따위의 개념들을 텍스트 분석에 확대·적용함으로써 파리기호학파의 “의미생성행로”(parcours génératif du sens) 표준 모델의 초석을 마련했다. 어휘 의미론을 통해 어떻게 문법 연구와 서사기호학이 연관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말이 나왔으니 여기서는 철학의 관점에서 문법의 역할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예컨대, 비트겐슈타인은 단어에 부여된 정의(definition)를 통해 언어와 실재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정의는 문법에 속하며²⁰⁾, 문법은 (순수 논리적 운용 원리로 결정되는) 명제의 진리 값과 (시간의 비결정성이 개입하는) 대상세계의 진리 조건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²¹⁾:

“시간과 진리-함수는 그 양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오직 문법에서만 그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에, 문법이야말로 상이한 양식을 설명해야 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거나 저 밖의 현실을 지시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철학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건 스

18) Katz, Jerrold & Fodor, Jerry, “The structure of a semantic theory”, *Language* 39, 1963.

19) Greimas, A. J.,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Greimas, A. J., *Du sens, essais sémiotiques*, Seuil, 1970.

20) Wittgenstein, Op. cit., 1974, p.238.

21) Wittgenstein, Ibid., p.216.

스로 만든 규칙들로 “시간과 진리-함수”의 존재양식을 밝힌다는 데 있다. 그리고 (진리-함수로 결정되는) 명제적 사고와 (시간의 비결정성이 두드러지는) 대상세계가 모두 언어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문법을 “참과 거짓, 가상과 현실, 말과 사물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것이 대신하는 사물이 곧 의미이고 의미가 사물의 진리조건(...)”²²⁾인 오브제로 규정한다. 오브제로서 문법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다시 통합적 차원의 의미성분으로 돌아가 외재적 의소를 설명해보자.

(2) 외재적 의소

(2-1) 잠재소

잠재소(virtuème)는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결합적 연상”²³⁾과 연관되는 “내포적 의소”(sèmes connotatifs)이다. 주목할 점은 어휘 의미론에 내포를 포함하는 순간부터 언어 사용 맥락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곧 코드 중심의 모델에서 맥락-의존적 모델로의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랑그 차원에서는 유형-의의(type-sens)로 존재하고 맥락이 주어졌을 때에는 토큰-의미(token-signification)로 발현되는 “외재적 의소”(sèmes afférents)²⁴⁾ 개념은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잠재화된 의소”와 “해석소”가 포함된다.

(2-2) 잠재화된 의소

잠재화된 의소(sèmes virtualisés)란 맥락이 주어졌을 때 관습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의미자질이다. “corbeau

22) 윤성노, 「<세월호>는 의미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의미의 동역학’을 통한 후기 구조주의적 정체성 비판-」, 『기호학 연구』 41, 한국기호학회, 2014, 207쪽.

23) Pottier, Bernard; Schulz, Patricia, *Description critique du concept traditionnel de <<métaphore>>*, Peter Lang, 2004, p.43에 재인용.

24) Camino Á. C., Flor M. B., Maria L. D.(éds), *Liens linguistiques: études sur la combinatoire et la hierarchie des composants*, Peter Lang, 2010, pp.137~139; <http://www.signosemio.com/rastier/semantique-interpretative.asp>

albinos”(‘흰 까마귀’)를 예로 들자면, 어휘소 “corbeau”의 의미자질 ‘검은’(/noir/)은 일반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재적 의소”(sème inhérent)이다. 사실 ‘검지 않은 까마귀’를 현실에서 마주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corbeau albinos”에서 이 의소는 실현되지 않았다. “albinos”를 구성하는 의소성분 ‘하얀’(/blanc/)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대립하는 의미성분들이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된다. 따라서 “corbeau”의 의미를 구성하는 성분 ‘검은’, 랑그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내재적 의소이고, “corbeau albinos”의 맥락에서는 선택되지 않다는 뜻에서는 잠재화된 의소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의소는 실현되고 다른 것은 잠재적 상태로 물러나는 걸까? “해석을 통해 연결된 단위들 사이에 관여적인 의소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언어학 혹은 기호학적 맥락정보”²⁵⁾로서 해석소(interprétants) 개념이 등장하는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해석소는 퍼스 기호학의 핵심이다. 이에 의소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해석소를 중심으로 퍼스의 기호사상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3. 의미와 해석

1) 기호학적 삼원소

퍼스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축은 크게 기호학(*semeiotics*)과 현상학(*phaneroscopy*)이다.²⁶⁾ 그에게 기호학이란 가설, 귀납, 연역, 가추법 등 추론을 근거로 작동하는 관계 논리학을 뜻하며, 기호는 표상체(*représentamen*: 일원성), 대상(*objet*: 이원성), 해석소(삼원성) 사이에 형성

25) Rastier, F., *Sémantique et recherches cognitiv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1, p.222.

26) Peirce, C. 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s. 1-6, 1931-1935, vols. 7-8 (edited by Charles Hartshorne and Paul Weiss), Arthur W. Burks. 1958; Short, T. L., *Peirce's Theory of Sig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되는 논리적 관계 이외 다른 아니다. 소위 기호학적 삼원소(triade)이다.

일원성은 표상체가 자기 자신과 맺는 일원적(monadique) 관계로, 언어 기호의 경우라면 기표 /arbre/(음소phonèmes)나 기표의 물리적 토대(음파 onde sonore)일 수 있다.²⁷⁾ 기표의 물리적 토대는 정보가 이동하는 매체에 상응하는데, 매체가 언어적일 필요는 없다. 단어 “arbre”에 담긴 정보를 메일로 보내면 매체는 전파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흰색 지팡이처럼 비언어 시각 표상체도 있다.²⁸⁾ 이원성은 단어 “arbre”와 단어를 통해 지향된 사물 ‘ARBRE’의 이원적(dyadique) 관계이다. 그런데 이는 이름과 사물의 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크라틸루스(Cratylus) 논쟁”에서 크라틸루스가 옹호하는 ‘자연적 유명론’²⁹⁾을 상기시킨다. 마지막으로 삼원성은 표상체, 대상, 해석소 사이에 형성되는 삼원적(triadique) 관계이다. 단어가 대상물에 대한 심적 표상이라고 주장할 때 아리스토텔레스³⁰⁾가 염두에 두는 것이 바로 해석소를 매개로 표상체와 대상 사이에

27) Farias, Priscila and Queiroz, João, "Notes for a dynamic diagram of Charles Peirce's classifications of signs", *Semiotica* 131(1/2), 2000.

28) 움베르토 에코, 『거짓말의 전략』, 김운찬 역, 열린책들, 2009

29) 크라틸루스는 적어도 누군가 최초로 사물에 이름을 부여한 순간에는 이름과 사물 사이에 ‘자연적’ 연관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헤르모게네스(Hermogenes)는 태초의 신화적 이름 부여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름과 사물의 관계를 사물에 이름을 부여한 언어 공동체에 고유한 관습의 산물로 본다. 한편, 플라톤은 유명론과 계약론을 절충해 단어는 사물의 이름(nomenclature)이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으로 의미된 사물(‘지시체’)과 관련이 있지만 사물은 명칭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문화적 속성들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단어는 사물의 이름표가 아니라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 기호이고 기표와 기의 그리고 기호와 사물의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소쉬르는 크라틸루스의 자연적 유명론과 플라톤의 절충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 “말해진 단어들은 영혼의 영향이나 감동에 대한 상징이나 기호이다. (...) 정신 상태 자체는, 이 단어들이 주로 그에 대한 기호인데, 그러한 상태가 대상물에 대한 표상이거나 외관, 이미지, 복제물인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것이다.”(Aristote, *De Interpretatione*, Leob Classical Library, London, 1938, 1.) 정신 및 실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식 보편주의는 중세 후반기 인류 공통의 보편문법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모디스타이(modistae)를 거쳐 17세기 포르 로와얄(Port Royal) 문법 학자들에게로 이어졌으며, ‘데카르트 언어학’에서 영감을 얻은 촘스키의 생성문법 역시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성되는 삼원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석소의 개입으로 가능한 삼원적 관계야말로 진정한 기호현상임을 상기하자.

2) 현상학적 삼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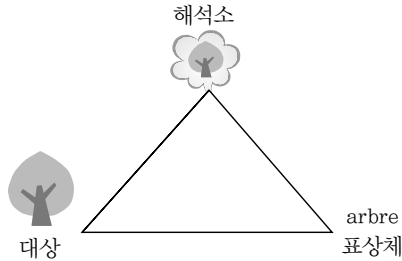
현상학이란 지각의 대상이 의식에 나타나는 양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현상학적 차원에서 세미오시스를 고찰함으로써 퍼스는 특히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에 따른 범주화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른바 현상학적 삼분법(tricotomie)이다.

일차성은 지각대상의 성질(Qualia)이다. 단어 “arbre”의 경우라면 언어 기호를 통해 지각자가 지향하는 사물 ‘ARBRE’(동적 대상)의 존재 느낌을 뜻한다. 가령 나무가 신령한 존재라거나 혹은 침엽수인지 활엽수인지 생각하지 않고 나무 자체를 관조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 상태를 일차성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를 두고 칸트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 즉 숭고라 부른다.³¹⁾ 이차성은 ‘나무’의 성질이 매체(medium)와 만나 발생하는 “충격 효과”이다. 직접성, 문맥-의존성을 내포하는 이차성의 예를 언어에서 찾자면 “나”, “오늘”, “여기” 등 그 뜻이 언어 사용 맥락에 좌우되는 직시어(déixis)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차성은 규범이나 규칙 등의 “필연성”이 가져다주는 ‘안정화’(stabilités)를 내포하는데, 소쉬르가 말하는 기호의 자의성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3) 해석 기호학의 관점에서 본 단어의 의미

이런 인식 틀로 보면 단어의 의미란 기호학적 삼원성과 현상학적 삼분법이 서로 교차되면서 만들어내는 열개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1) 베르너 용, 『미메시스에서 시물라시온까지: 미학사 입문』, 장희창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76쪽.



〈도식2. 삼원적 기호 모델〉

앞서 설명한 구조 의미론의 맥락에서 관건은 단어들 사이에 형성되는 소극적 관계들의 망을 통해 어휘 장이 조직되고, 어휘 장이 조직되는 방식은 언어 외적 요소들(언어 사용자의 의도, 관련 집단의 언어 사용 규범, 단어로 지시되는 ‘사물’의 존재론적 속성 등)과는 별개이며, 따라서 언어적 정체성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사회가 아니라 언어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기 삼원적 기호 모델³²⁾에 따르면, 기표(/arbre/)와 기의(‘arbre’)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프랑스어 단어 “arbre”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충분치 않다. 퍼스의 말처럼, 표상체, 해석소, 동적 대상 ‘ARBRE’ 사이에 형성되는 3원적 관계야말로 진정한 기호현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표상체가 해석소를 통해 대상을 매개할 때에만 기호라고 부른다.³³⁾ 또한 이항대립을 기반으로 하는 포티에의 ‘의자’ 장 분석처럼 동일한 어휘 장에서 속하는 단어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들의 망을 통해 각각의 변별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에도 한계는

32) 기호학적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기에서는 “삼원적” 기호 모델로 표기하지만 정확히 하자면 기호학적 삼원소와 현상학적 삼분법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다차원적’(multi-dimensionnel)이라 용어가 더 적절할 것이다.

33) 표상체와 기호는 동의어가 아니다. 가령 소리가 음소로 기능할 때 표상체는 동시에 기호이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외국어를 처음 들었을 때가 그렇다. 모국어 화자에게 소리는 기호로 기능하겠지만 외국인에게는 단지 의미 없는 음연속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기호로 위상 변화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표상체는 “준-기호”(almost sign)이다.

있다.³⁴⁾ 한편으로는 표상체와 해석소 그리고 대상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시체’를 물리-현상학적으로 지각하는 양상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기호학적 삼원소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해석소가 퍼스 기호학의 핵심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그의 기호 사상을 검토하는 이유 역시 맥락이 주어졌을 때 왜 어떤 의미성분은 실현되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라스티에가 외재적 의소 범주에 해석소를 포함시킨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해석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4) 해석소의 기능 및 유형

해석소란 어떤 관점에서 동적 대상을 직접(immédiat) 대상(동적 대상과 관련된 기호 내부의 표상내용)의 형태로 재 표상하는 새로운 표상체(R2) 이외 다름 아니며, R1과 비교할 때 R2는 기능적으로 동일하거나 개념적으로 더 발전된 기호이고, 동적 대상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 새로운 직접 대상(O3)과 연결된다. 표상체(R1: /arbre/)와 동적 대상(O1: ARBRE)을 연결하는 동시에 또 다른 대상(O2: 직접 대상, ‘arbre’)을 의

34) 유럽대륙기호학 훈련을 받았다면 보통 어휘 장이 이항대립으로 조직된다는 가설에 의구심을 품지 않는다. 소쉬르, 엘름슬레브, 그레마스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지식 축적을 위해서는 물론 동료 연구자들에 의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석행위에 대한 적절성 판단자가 궁극적으로는 지식 향유자인 대중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인식론적 가정들이 한 국민의 정서에 어울리는지 아닌지 논하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KBS 프로그램 <이어령의 서재> “한옥의 비밀” 편에서 이어령 선생은 한옥, 팔각정, 돌담 등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왜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인터랙티브’를 중시하는 민족인지 설명한 적이 있다. 오리엔탈리즘 비판을 반복 하자는 것도, 무턱대고 동양의 가치를 드높이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양자택일을 조장하는 이가논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의미 분석이 ‘폐지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자문하고, 또한 세계적 보편성(global)과 지역적 특수성(local)을 함께 사유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호학적 방법론에 대해 성찰해보자는 것이다.

식에 나타나게 짓을 두고 우리는 해석소의 이중 매개 기능이라 부른다. 그리고 동적 대상에 대한 정보가 소진될 때까지 해석소의 이중 매개 작용이 원리상 무한 반복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해석소(I1)가 특정한 방식으로 대상을 표상함으로써 새로운 표상체(R2)를 놓고 R2가 다시 또 다른 해석소(I2)를 잉태하며 I2가 또 다른 R3로 이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동적 대상은 의미의 연쇄 속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는 것이다.³⁵⁾ 이처럼 동적 대상이 일련의 해석소들을 통해 직접 대상들로 분절됨으로써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체로 변형되는 과정이 바로 해석이다.

그런데 퍼스가 동적 대상과 직접 대상을 구분하고 해석소에 이중 매개 기능을 부여한다는 사실에 빗대어 보니, 기호로 지시되는 대상(*Bedutung*: 동적 대상)과 대상이 지시되는 양상(*Sinn*: 직접 대상)을 구분하는 프레게³⁶⁾의 철학적 의미론이 새롭게 다가온다. 그리고 프레게의 의미론에 영향을 받은 러셀³⁷⁾이 명제의 1, 2차 발생을 구분하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데,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양태화’(modalisation)와 관련된 명제의 2차 발생이다. 이차 발생의 관점에서 보면, 가령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라는 명제의 의미는 오늘날 프랑스에 실제로 대머리인 왕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있지 않다. x가 있고 x는 현재 대머리 프랑스 왕이며 어떤 가능세계에 현재 대머리인 프랑스 왕(x)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차 발생의 차원에서 명제 의미의 존재양상을 논하는 가능세계 의미론은 텍스트 분석 시 서사주체들의 양태적 존재양상을 기술하기 위

35) “기표들의 연쇄 속에서 의미가 끊임없이 미끄러진다”는 생각은 후기구조주의의 중심 테제이다. 차연을 중심으로 해체주의를 전개하는 데리다가 그렇고, 기의에 대한 기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기표들의 연쇄 속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구하는 라캉이 그렇다.

36) 예컨대, 셋별과 개밥바라기 모두 금성(*Bedutung*)을 지시하지만 각각의 단어로 금성이 지시되는 양상(의미Sinn)은 다르다, 나폴레옹을 혁명의 계승자로 부르는 것과 위털루의 패배자로 지칭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Frege, Gottlob, *Écrits logiques et philosophiques* [traduit par Claude Imbert], Points, 1996).

37) Russell, B., “On Denoting”, *Mind*, 1905.

해 그레마스³⁸⁾가 제안하는 양태성 이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호학적 삼원성과 현상학적 삼분법에 따라 해석소는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삼원성 범주에는 기호 내부에 표상된 직접 해석소(일원성), 맥락 의존적인 동적(dynamique) 해석소(이원성), “아비투스”(habitus)³⁹⁾의 영향 하에 그렇게 해석되도록 미리 설계된 최종(final) 해석소(삼원성)가 포함된다. 그리고 삼분법 범주에 속하는 해석소로는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일차성),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이차성), ‘상식’에 맞게 정형화된 습관이나 사고방식(삼차성: 논리 해석소)이 있다. 앞서 우리는 어휘소 “corbeau”의 의미자질 ‘검은’(/noir/)이, 의의의 구성성분이라는 점에서는 내재적 의소이고, “corbeau albinos”의 토큰-의미와 관련해서는 비활성 상태의 잠재화된 의소라고 한 바 있는데, 퍼스 용어를 빌어 ‘검은’을 설명하자면 “corbeau”의 동적 대상과 관련해 특정 관점에서 의미구조 내부에 표상되어 있으며 아비투스에 따라 보통은 그렇게 해석되기로 유도되지만 “corbeau albinos”라는 발화맥락이 주어졌을 때에는 활성화되지 않은 해석소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특정 의소를 켜거나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가? 믿음, 가치체계, 이데올로기 등 해석규범들과 관련된 최종-논리 해석소에 주목할 때 비로소 해답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5) 최종-논리 해석소

“noir albinos”(‘하얀 흑인’)를 예로 들자면, 이는 색소 산출을 담당하는 기관에 이상이 생겨 피부색이 하해 지는 백색증 질환을 앓고 있는 흑인

38) Greimas, A. J., *Du sens* 2, Seuil, 1983.

39) “특정 계급이 그들의 생존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영구적이면서도 변동 가능한 성향체 계인 아비투스가 만들어진다. 그것은 또한 구조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목표를 겨냥하거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을 명시적으로 통제하지 않고서도, 객관적으로 그 목표에 맞추어질 수 있는 실천과 표상들을 조직하고 발생시키는 원칙으로서 기능하도록 구조화된 구조들이다.”(Bourdieu, P., *Le sens pratique*, Paris, Editions de Minuit, 1980, pp.88-89.)

을 지칭한다. 그런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알비노에게 주술적 힘이 있어 그 신체 일부를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어서 흰 피부색을 지닌 흑인 아이들의 팔다리를 잘라 매매하는 행위가 사회문제라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탄자니아에서만 70 명이 넘는 알비노들이 목숨을 잃었다⁴⁰⁾).

내재적 관점에서 보면 “noir albinos”와 “corbeau albinos”의 소구조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에 내포된 뜻이 같지 않음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안다. 동물에게 발생하는 돌연변이로서 탈색 현상과 사회적 차별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해석 차원에서 이런 차이는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다. 즉, 흰 까마귀 이야기를 접할 때 해석자는 해석맥락에 부합하는 조건(동위소isotopie)으로 ‘자연’이라 명명할 수 있는 개념 장을 상징하고 백색증 환자의 경우에는 인권이나 윤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이점에서 동위소는 언어적 의미와 문화적 인식(스테레오타입, 스크립script, 프레임, ‘상식’ 등)이 중첩되는 “의미론적 지각”(perception sémantique)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우리가 제기하는 물음은 이렇다.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결합적 연상”(포티에의 잠재소) 또는 “의소를 실현시키거나 반대로 잠재화시키는 맥락 정보 단위”(라스티에의 해석소)를 어느 정도까지 “noir albinos”의 의미 분석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4. 복잡계로서의 세미오시스

우리의 생각은 세미오시스에 접근함에 있어 “의미의 생성 및 변천 과정 속에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기호 사용자 집단과 (역사-문화적) 기호 사용 환경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기조직

40) <Libération Monde> 2014/08/25일 인터넷 기사: http://www.liberation.fr/monde/2014/08/25/tanzanie-les-jeunes-albinos-victimes-de-maltraitance-dans-les-centres-d-accueil_1086758

하는 비선형 복잡계(système complexe à caractère non-linéaire) 현상⁴¹⁾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자기조직화란 카오스이론에서 차용된 개념으로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분기”(bifurcation)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비평형 상태에서부터 “기이한 끌개”(attracteur étrange: 주체의 ‘몸’)를 중심으로 “소산구조”(structure dissipative)가 생겨나는 과정”⁴²⁾을 뜻한다. 이렇듯 언어의 의미론적 정체성을 복잡계 현상으로 간주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매개된 행위능력”(agency)⁴³⁾을 보유한 개인들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보자. 그렇다면 프랑스어 단어 “noir”(‘흑인’)가 랑그 차원에서는 의소모델-유형(moèle sémique-type)으로 존재하고 발화 맥락에 따라 유형은 상이한 토큰들로 켜질 수 있으며 “noir albinos” 경우에는 내재적 의소 ‘검다’가 꺼져 잠재화 상태로 물러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알비노의 실태를 고발하는 미디어 저널리즘 장르의 비판적 성격을 고려해서 알비노들의 장기가 매매되는 탄자니아의 현실, 장기 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는 신념이나 가치체계, ‘미신’을 타파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교육체계, 불균등한 교육기회,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및 권력관계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noir albinos”의 특정 의소가 활성화되거나 억제되는 메커니즘을 오롯이 기술하려면 “맥락-적절성”(pertinence contextuelle) 개념⁴⁴⁾을 도입해 표현이 유통되는 기호계(Sémiosphère)에 고유한 인지지각 패턴이나 백과사전적 배경지식 등이 최종-논리 해석소로 수렴되는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1) 윤성노, 앞의 글, 2015a, 180쪽.

42) 윤성노, 앞의 글, 2015b, 195쪽. 저자가 강조함.

43) Ahearn Laura M., “Language and Agenc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0, 2001, p. 112.

44)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Relevance Theory" in *Handbook of Pragmatics*(Ward G. and Horn L. [eds.]), Oxford: Blackwell, 2004.

Ⅲ. 결론

사물 ‘유니콘’이 없다고 단어 “유니콘”이 무의미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구조 기호학은 ‘대상 없는 의미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래서 지시체는 배제한 채 의미체계를 구조화하는 최소 요소들의 관계에 방법론적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기호체계로서 언어(랑그)는 개념 제공자이고 개념을 통해 세상을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변형시키므로 사고와 대상세계 모두에 앞선다고 생각한다. 랑그 중심 연구 패러다임의 기본 연구가설은 구조적 차원에서 의미가 조직되는 원리를 통해 바라볼 때 세미오시스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학문적 태도가 “추상적 관념론”⁴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기호의 안과 밖을 가로지르는 네오 소쉬르적 통합 기호학의 사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데 있다.

이에 본고에서 우리는 세미오시스를 복잡계 현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언어적) 의미가 생성되고 해석될 때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에 주목했다.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의 흰색 지팡이로 구현되는 신호체계를 구조화하는 코드를 기술하는 동시에 메시지 발신자의 속이려는 마음과 지팡이를 보고 유도된 수신자의 반응을 고려해서 거짓 세미오시스를 고찰하는 것이다. 더욱이 상징(기호)은 상징일 뿐이다. 상징으로 매개되는 의미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상응하는 실천맥락이 있기에 가능하다. “언어는 실천 맥락과 복잡하게 얽혀있고 맥락은 특정한 삶의 양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단어의 의미란 고로 언어공동체에 고유한 행위 규범 및 규칙 그리고 인지지각패턴들로 결정”⁴⁶⁾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 암시하는 바이다. 난해한 학자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일전에 KBS 가요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서 가수 소향의 “홀로 아리

45) 바흐진 M., 볼로쉬노프 V. N.,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송기한 역, 한겨레, 1988.

46) 윤성노, 「단어는 확률적으로 지시한다 -러셀과 크립케의 지시 이론 비판 및 인지기호학적 대안-」, 『철학적 분석』, 계재 예정.

량”을 들은 적이 있다. 대중가요 문외한인 필자가 직업가수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예술가를 평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다만 1) 가사와 멜로디의 형태로 전파되는 담론이 대중가요 전문가 집단(지식) 및 미디어산업자본(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유통되고 2) 담론의 질서 하에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배제한다면, 그리고 3) “기표 중의 기표”(팔루스, 집단 무의식, 문화적 원형 등)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4) 콘텐츠를 생산소비하는 집단지성(“프로슈머”)이 기이한 끌개로서 소산구조를 발생시키는 자기조직화 역량을 분석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기호학 연구는 어쩌면 말공부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말공부를 할 게 아니라면 말은 일과 통해야 하고, 그러자면 내재성 vs 외재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언어, 인지, 문화 사이의 경계선 상에서, 한편으로는 단어의 외연(dénotation)을 구성하는 의미성분(의소), 지각된 사물의 범주속성(intension), 범주구성원(extension)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내포 connotation), 다른 한편으로는 명제의 진리 값(논리적 필연), 진리 값을 조건화하는 대상세계(문화적 우연), 진리 값과 진리조건이 상대화되는 문법(자기 회귀적 오브제)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고의 결론이다.

참고문헌

- 로이 헤리스,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고석주 역, 보고사, 1999.
- 바흐쎈 M., 볼로쉬노프 V. N.,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송기한 역, 한겨레, 1988.
- 베르너 용, 『미메시스에서 시뮬라시옹까지: 미학사 입문』, 장희창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 움베르토 에코, 『거짓말의 전략』, 김운찬 역, 열린책들, 2009.
- 윤성노, 「정의를 관점에서 문화연구자는 문화시장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기호학 연구』43, 한국기호학회, 2015a, 150~191쪽.
- _____, 「프랑스어 모음 변이 및 운율에 대한 ‘범시적’ 접근」, 『프랑스학연구』 71, 프랑스학회, 2015b, 167~201쪽.
- _____, 「<세월호>는 의미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의미의 동역학’을 통한 후기구조주의적 정체성 비판-」, 『기호학 연구』 41, 한국기호학회, 2014, 197~226쪽.
- _____, 「굿판의 의미 생성 및 주술치료에 대한 기호-인식론적 소고」, 『인문논총』 67, 서울대학교, 2012, 115~147쪽.
- _____, 「단어는 확률적으로 지시한다 -러셀과 크립케의 지시 이론 비판 및 인지 기호학적 대안-」, 『철학적 분석』, 게재 예정.
- 손 호머, 『라캉 읽기』, 김서영 역, 은행나무, 2006.
- 크리스틴 케닐리, 『언어의 진화 : 최초의 언어를 찾아서』, 전소영 역, 알마, 2009.
- 프랜시스 후쿠야마, 『대붕괴 신질서』,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역, 김영사, 2001.
- Ahearn Laura M., “Language and Agenc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0, 2001: 109-137.
- Aristote, *De Interpretatione*, Leob Classical Library, London, 1938.
- Bouquet, Simon, “Principes d’une linguistique de l’interprétation: une épistémologie néosaussurienne”, *Langages* 185(1), 2012: 21-33.
- Bourdieu, P., *Le sens pratique*, Paris, Editions de Minuit, 1980.
- Camino Á. C., Flor M. B., Maria L. D.(éds), *Liens linguistiques: etudes sur la combinatoire et la hierarchie des composants*, Peter Lang, 2010.
- Farias, Priscila and Queiroz, João, “Notes for a dynamic diagram of Charles Peirce’s classifications of signs”, *Semiotica* 131(1/2), 2000: 19-44.

- Frege, Gottlob, *Écrits logiques et philosophiques* (traduit par Claude Imbert), Points, 1996.
- Greimas, A. J.,
- *Du sens 2, Seuil*, 1983,
 - *Du sens, essais sémiotiques, Seuil*, 1970,
 -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 Katz, Jerrold & Fodor, Jerry, "The structure of a semantic theory", *Language* 39, 1963: 170-210.
- Lacan, J., *Écrits*, Paris: Le Seuil, 1966.
- Marie-José Reichler-Béguelin, "Saussure et l'étymologie populaire" dans *Saussure aujourd'hui* (sous la direction de Michel Arrivé et Claudine Normand), *Linx* numéros spéciaux 7, 1995: 121-138.
- Peirce, C. 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s. 1-6, 1931-1935, vols. 7-8 (edited by Charles Hartshorne and Paul Weiss), Arthur W. Burks. 1958.
- Pottier, Bernard, *Sémantique généra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
- Rastier, F., *Sémantique et recherches cognitiv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1.
- Roman Jakobson, *ON LANGUAGE* (edited by Linda R. Waugh and Monique Moville-Bur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1956).
- Russell, B., "On Denoting", *Mind*, 1905: 479-493.
- Saussure, Ferdinand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édition critique par Tullio de Mauro], Payot, Paris, 1972.
- Short, T. L., *Peirce's Theory of Sig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Schulz, Patricia, *Description critique du concept traditionnel de <<métaphore>>*, Peter Lang, 2004.
-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Relevance Theory" in *Handbook of Pragmatics* (G. Ward and L. Horn [eds]), Oxford: Blackwell, 2004: 607-632.
- Starobinski, J., *Les mots sous les mots. Les anagrammes de Ferdinand de Saussure*, Paris: Gallimard, 1971.
- Wittgenstein, Ludwig,
-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Anscombe G. E. M. and Rhee R. (eds.), Anscombe G. E. M. (trans.)], 1978,
 - *Philosophical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Rhee R. (ed.), Kenny A. (trans.)], 1974.

<http://linx.revues.org/1131>

<http://www.signosemio.com/rastier/semantique-interpretative.asp>

http://www.liberation.fr/monde/2014/08/25/tanzanie-les-jeunes-albinos-victimes-de-maltraitance-dans-les-centres-d-accueil_1086758

Etude interdisciplinaire sur l'identité sémantique du mot
conçue comme système complexe
- autour de sémantique structurale, philosophie analytique,
sémiotique interprétative

Youn, Sung-No

L'objectif de la présente communication consiste à mettre au point l'identité sémantique du mot, le langage étant considéré comme un système complexe à caractère non-linéaire qui sert de l'outil perceptivo-cognitif pour la construction de mondes possibles. Pour ce faire nous nous proposons d'abord de mettre en examen avec un regard critique le modèle diadique du signe(Saussure) et la sémantique structurale(Bernard Pottier) qui en résulte. La question de perception sémantique(Rastier) s'en posera aussi afin de regarder de près des unités élémentaires du sens d'ordre contextuel comme sème afférent, ce qui nous amène au modèle triadique du signe par Peirce, l'importance étant donnée au concept d'interprétant. C'est une occasion d'explicitier notre position à l'égard des rapports qu'il y a entre l'au-dela et l'en-deça de la langue. Il s'agit ensuite de rendre compte de ce qui arrivera au sens du mot "plante" lors d'une situation hypothétique que Wittgenstein imagine à propos d'une plante nouvellement découverte et qui demeure ainsi conceptuellement floue sans corrélat linguistique. En conclusion nous essayons d'expliquer la raison pour laquelle il faudra porter l'attention à la zone d'entrecroisement entre langage, cognition, et culture de manière à mieux connaître l'identité réelle de l'unité sémio-linguistique.

Keyword: autopoïésis, jeux de langage, différence, catégories sémiques, perception sémantique, afférence, interprétant.

투고일 : 2015. 08. 15. / 심사일 : 2015. 08. 30. / 심사완료일 : 2015. 09. 05.